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 ◎ **대심방:** 2012년 대심방을 이번주부터 공동체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체:** 각 공동체체장은 기도 제목과 심방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 **감사:** 예배 후 교제 떡은 심창진 목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 ◎ **금주 심방일정:** 캄보디아 공동체(김성묵집사 가정) 11일 (토)
- ◎ **수료:**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마쳤습니다. 수료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자: 김광영, 이동술, 이정인, 김선화, 박은경, 원미경, 장태옥, 이옥화, 정혜숙, 한상순
- ◎ **월례회:** 1남 선교회(결혼-66년생), 4여 선교회(52년생 이후) 월례회가 아동부실과 친교 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교우소식

- ◎ 이사: 심창진 목사 12 Sunnynook Road, North Shore 410-2079

8월 새벽 기도회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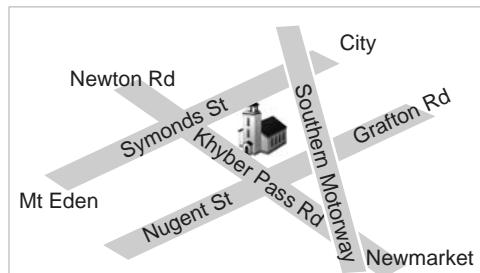
- 3일: 누가복음 9:18-27 신앙고백과 십자가를 향한 순종 10일: 누가복음 11:1-13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7일: 누가복음 12:35-48 깨어있는 신실한 종은 복됩니다 24일: 누가복음 14:25-35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31일: 누가복음 17:22-37 데려감과 버려둠으로 구분되는 그날

갈보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오시는 길



2012년 8월 5일

14권 32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2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4:24)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14)

작년에 캔버라로 가기로 결정하였을 때 난 내심 걱정이 많았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낯선 곳에서 다시 이민 초기처럼 살아 갈 일과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다. 좋은 목사님 만나기를 위해, 좋은 교회를 만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 캔버라에 도착한 나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캔버라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청년 50 여명, 장년 십여 명인 작은 교회였지만 믿음만은 뜨거웠다.

그곳 목사님은 변화하지 않으려 하는 고착화된 신앙에 대해 많이 경계하셨다. 나는 그곳에서 만난 청년들의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을 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들의 믿음에 비해 난 종교의식에 잘 길들여져 있는 박제화된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으며 하나님을 내 지식의 틀 안에 가두어 두고 스스로 한계를 지우려 했던 어리석고 교만한 자였다. 내주하실 뿐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계속 역설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처음엔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마치 쓴 약을 입에 문 것 같이 힘들었지만, 서서히 느껴지는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분을 느낄 수 있었다.

교회에서 주일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은 나에게 이단들에 의해 많이 왜곡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는 애듯한 마음을 갖게 하였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나는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캔버라를 간 줄 알았지만… 그것은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 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곳은 나를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신 소중한 광야 훈련장이었었다.

나를 캔버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셨으며 다시 이곳으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셨음을 내가 믿는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심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어느 것인들 감사하지 않을 일이 있을것 인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잠언 16:9)

- 김영길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갈보리교회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히브리서 11:6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35장
※ 성시교독	65. 시편 149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91장
대표기도	고성일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10:24-33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아름다운 만남
찬송	이태한 목사
현금기도	80장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인도자
※ 축도	인도자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심창진 목사
기도 / 김광영 집사
성경봉독 / 뉴 9:37-45
설교 / 감추어진 말씀 / 심창진 목사
찬송 / 주 말씀 향하여
현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 목사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방명아 집사
성경 / 삿 11:29-31
설교 / 입다의 서원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380장
주기도 / 다함께

건축헌금 지난주: \$ 480.00
총계: \$ 613,493.19

◎ 8월 교회일정

공동체 주관 수요예배:
8월 29일 (수)

◎ 8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김광자/심경순
새신자 안내:
심경순/김광자
주차안내:
양봉숙/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원미경/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기도: 박일영 장로
다음 주일 1부: 박덕철 집사
다음 주일 2부: 박수현 집사
8월 15일 수요기도: 손조훈 집사
8월 15일 애찬기도: 김은희 집사
8월 19일 1부: 박병민 집사
8월 19일 2부: 박소망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국내

신앙의 침체에 허덕이는 뉴질랜드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훈련을 잘 시키고, 부모들은 자신들을 비롯하여 자녀들의 신앙 열정을 일으키는 데 힘을 쏟도록. 한인 교회들이 각 부분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서도록.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교만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2. 교회

성도들 간의 이해와 사랑이 더 깊어가는 교회,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신앙중심으로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선포되는 말씀에 깨달음으로 응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회복이, 가정의 어려움이 성령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도록.

3. 해외

런던 올림픽이 주님의 통치하심이 선포되도록, 이 일을 주관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또 영국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도록. 200여 나라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중인들이 일어나도록.

HELP IN TIME OF NEED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Protection in Time of Danger: 현재의 위험 속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Psalm 121 [시편 121]

I look up to the mountains – does my help come from there? My help comes from the LORD, who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He will not let you stumble and fall; the one who watches over you will not sleep. Indeed, he who watches over Israel never tires and never sleeps. The LORD himself watches over you! The LORD stands beside you as your protective shade. The sun will not hurt you by day, nor the moon at night. The LORD keeps you away from all evil and preserves your life. The LORD keeps watch over you as you come and go, both now and forever.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을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 경덕현 집사 제공